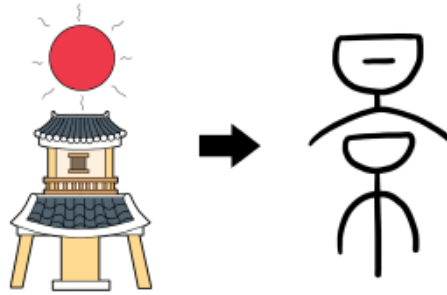


5
-
11

회의문자①



景

별 경(·)

景자는 '별'이나 '햇살', '경치'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景자는 日(해 일)자와 京(서울 경)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京자는 높은 건물을 그린 것이다. 이렇게 높은 건물을 그린 京자 위로 日자가 더해진 景자는 건물 위로 햇볕이 내리쬐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참고로 景자에 그림자를 표현한 𡩊(터럭 삼)자가 더해지면 影(그림자 영)자가 된다.

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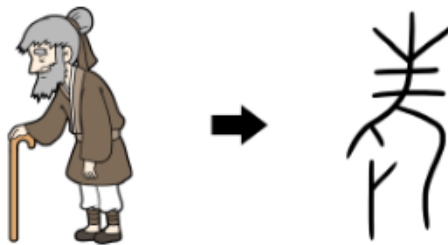
소전

景

해서

5
-
12

상형문자①



考

생각할
교(·)

考자는 '생각하다'나 '깊이 헤아리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考자는 耂(늙을 노)자와 丂(공교할 교)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丂자는 '숨씨가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는 있지만 여기서는 모양자 역할만을 하고 있다. 考자는 老(늙을 노)자에서 파생된 글자이다. 갑골문에서는 지팡이를 짚은 사람을 그려 '노인'을 뜻했었다. 금문에서 지팡이를 匕(비수 비)자로 표현한 耂자와 丂자로 표현한 考자가 파생되었는데, 考자는 오랜 경험과 연륜을 통해 깊이 헤아려 생각할 줄 아는 노인이라는 뜻을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단순히 '노인'을 뜻하는 老자와 달리 考자는 '깊이 헤아리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考

갑골문

考

금문

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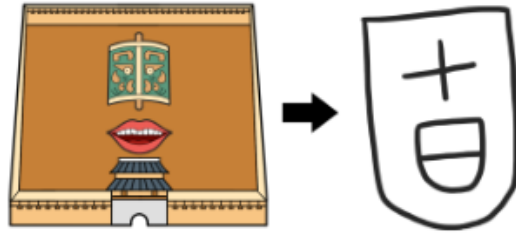
소전

考

해서

5
-
13

회의문자①



固

굳을
고(·)

固자는 '굳다'나 '단단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固자는 口(에운담 위)자와 古(옛 고)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口자는 성(城)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을 그린 것이다. 固자에 쓰인 古자는 '옛날'이나 '오래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성벽은 외부의 침입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단단하면서도 오래도록 유지되어야 했다. 固자는 그러한 의미를 담은 글자로 성벽이 오래도록 견고하다는 의미에서 '굳다'를 뜻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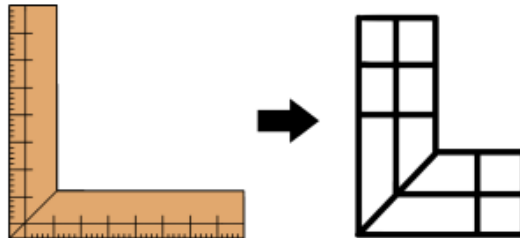
금문

소전

해서

5
-
14

상형문자①



曲

굽을 곡

曲자는 '굽다'나 '바르지 않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曲자는 曰(가로 왈)자가 부수로 지정되어 있는 있지만 '말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갑골문에 나온 曲자를 보면 L자 모양에 눈금이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길이를 측정하는 '자'를 그린 것이다. 다만 曲자는 굽은 형태에서 연상되는 '굽다'나 '바르지 않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갑골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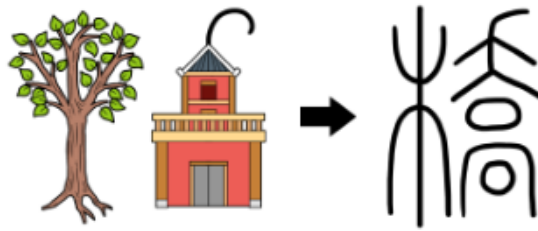
금문

소전

해서

5
-
15

회의문자①



橋

다리 교

橋자는 '다리'나 '교량'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橋자는 木(나무 목)자와 喬(높을 교)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喬자는 높은 건물 꼭대기에 걸려있는 갈고리를 𡵓 그린 것으로 '높다'라는 뜻이 있다. 橋자는 이렇게 '높다'라는 뜻을 가진 喬자에 木자를 더한 것으로 높게 지어진 '다리'나 '교량'을 뜻한다. 예전에는 돌다리보다는 나무로 만든 다리가 더 많았으니 木자가 다리의 재질을 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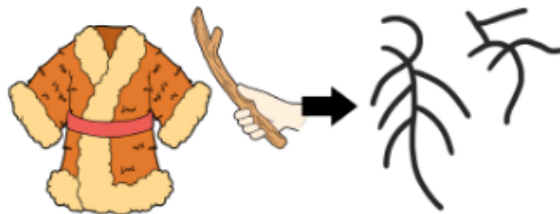
소전

橋

해서

5
-
16

회의문자①



救

구원할
구:

救자는 '건지다'나 '구원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救자는 求(구할 구)자와 攴(칠 복)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求자는 털가죽으로 만든 옷을 그린 것으로 '구하다'나 '탐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救자는 이렇게 '구하다'라는 뜻을 가진 求자에 攴자를 결합한 것으로 누군가를 구한다는 뜻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救자에 쓰인 攴자는 위기에 빠진 사람을 구하기 위해 나뭇가지를 내민다는 뜻으로 응용된 것이다.

救

금문

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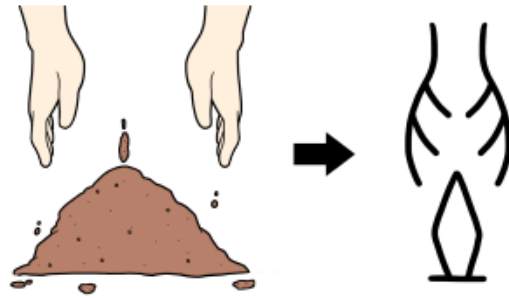
소전

救

해서

5
-
17

회의문자①



貴

귀할 귀:

貴자는 '귀하다'나 '(신분이)높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貴자는 臼(절구 구)자와 土(흙 토)자, 貝(조개 패)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그런데 갑골문에 나온 貴자를 보면 양손으로 흙을 감싸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농경을 중시하던 시대에 흙은 만물을 창조하는 귀한 존재였다. 그래서 갑골문에서는 이렇게 양손으로 흙을 감싸는 모습을 그려져 '귀하다'나 '귀중하다'라는 뜻을 표현했었다. 그러나 소전에서는 여기에 貝자가 더해지면서 귀중함의 존재가 흙에서 재물로 옮겨져 오게 되었다.



갑골문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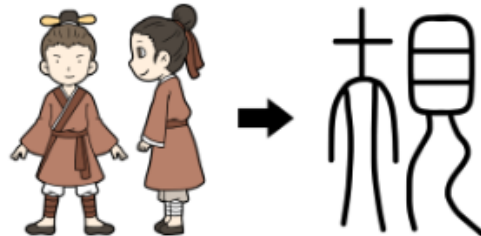
소전



해서

5
-
18

회의문자①



規

법 규

規자는 '법규'나 '법칙'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規자는 夫(시아비 부)자와 見(볼 견)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夫자는 상투를 틀고 비녀를 꽂은 남자를 그린 것으로 '시아비'나 '남자'라는 뜻을 갖고 있다. 고대에는 결혼하거나 성인이 되어야 비녀를 꽂을 수 있었다. 그래서 夫자는 어른을 뜻한다. 어른을 뜻하는 夫자에 見자가 결합한 規자는 '어른의 안목'이라는 뜻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規자는 어른의 안목은 '옳다'라는 의미에서 '법규'나 '법칙'을 뜻하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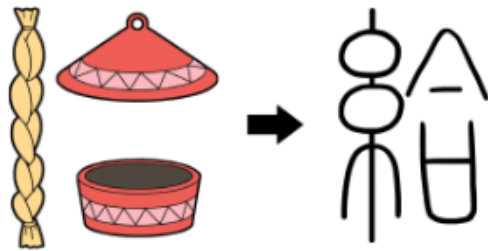
소전



해서

5
-
19

회의문자①



給

줄 급

給자는 '주다'나 '더하다', '보태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給자는 糸(가는 실 사)자와 合(합 할 합)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合자는 뚜껑이 있는 그릇을 그린 것으로 '합하다'나 '더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給자는 긴 실을 만들기 위해서는 계속 다른 실을 이어주어야 한다는 뜻을 표현하기 위해 만든 글자였다. 그래서 '더하다'라는 뜻을 가진 合자에 糸자를 결합해 실이 계속 이어진다는 뜻의 給자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다만 지금의 給자는 단순히 '주다'라는 뜻으로만 쓰이고 있다.

給

소전

給

해서

5
-
20

汽

물끓는김
기

형성문자①

뜻을 나타내는 삼수변(氵 (=水, 氷) ⇨ 물)部와 음(音)을 나타내는 동시(同時)에 증기(蒸氣)의 뜻을 나타내는 글자 气(기)로 이루어짐. 수증기의 뜻.